

만성지구 주민 민원업무 편해진다

전주시, '만성지구 현장민원실' 운영 개시...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기대

전주시방범원·검찰청 이전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이후 행정민원 수요가 급증한 전주 만성지구에 현장민원실이 설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전주시는 만성지구 주민들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주시방범원 옆 대한법률구조공단 건물 1층에 마련한 '만성지구 현장민원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법조타운이 조성된 만성지구는 혁신동과 같은 생활권에 위치해있지만 행정구역이 여의동에 속해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여의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또, 학군·가맹점 등도 실제 생활권(혁신동)과 행정구역(여의동)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만성지구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행정구역 조정 이전까지 현장민원실을 운영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5일 만성지구 현장민원실을 찾아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했다.

키로 결정했다. 현장민원실이 설치되면서 오는 10월 입주예정인 만성지구 예코리 2차(830세대·2355명) 입주민의 경우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향후 만성지구 주민들의 근본

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4월 혁신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관에 맞춰 만성지구를 혁신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만성지구 현장민원실을 찾아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주민들이 현장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의동주민센터와 만성지구 내 아파트 7개 단지, 법원 인근 도로 등 11개소에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여의동 통장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현장민원실 운영 사실을 홍보해왔다.

시 관계자는 "만성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성지구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사항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주요국 주한공관과 파트너십 강화

전주시, 주한미국·주한이탈리아대사관서 방문 간담회 가져

전주시가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가의 주한공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일 서울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문화행사를 홍보하고,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먼저 용산구에 위치한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 공공외교담당관에게 미국 뉴올리언스와 협력중인 전주재즈페스티벌을 소개하고, 향후 지속적인 행사 추진을 위한 주한미국대사관의 협력을 요청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전주재즈페스티벌은 '거리에서 만나는 뉴올리언스 정통재즈'를 콘셉트로 진행됐으며, 약 4만 명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과 재즈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어 주한이탈리아대사관·이탈리아문화원으로 자리를 옮겨 오는 9월로 예정된 전주세계문화주간-이탈리아 문화주간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행사인 '전주세계문화주간'은 해마다 주한해외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력해 바탕으로 열리는 행사로, 올해 행사는 오는 9월 주한이탈리아대관·주한이탈리아문화원, 전주시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시의 협조로 전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세계문화주간은 그동안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등 주한대사관 및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대한민국지도자협의회 국제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서배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시는 해외도시, 국제기구, 주한공관, 외신, 영국항공등의 글로벌 기업과 탄탄한 글로벌네트워크를 자랑하며 다양한 협력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면서 "전주시의 글로벌 브랜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생활폐기물 수거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없어야"

우범기 시장, 최근 화재 발생한 전주종합리사이클링 내 재활용선별장 현장방문·수습대책 점검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전주종합리사이클링 재활용선별장을 찾아 폭염 속 생활폐기물 수거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지난 5일 전주종합리사이클링 내 재활용선별장을 찾아 최근 화재사고가 난 시설의 보수 계획과 시설 복구 작업 현황, 재활용쓰레기 처리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여름철 생활폐기물의 차질 없는 수거 및 처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종합리사이클링 재활용선별장은 지난 1일 새벽 잔재물 적재장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쌓여있던 재활용 잔재물 일부가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5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이후 현재까지 화재사고 수습 및 시설 점검을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날 우 시장은 화재로 운영이 정지된 재활용선별장을 구석구석 살핀 후, 화재사고 후 재활용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매일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의 수거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



복구 완료시까지 안정적 외부처리 시스템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우 시장은 또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만큼 재가동 시까지 시민들도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과 배출량 감량 등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인 만큼 가동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없어야 한다"면서 "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처리되지 않은 생활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시설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탄소중립 실천 웹툰 공모전' 개최

전주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탄소중립 실천을 주제로 한 웹툰 공모전을 연다.

시는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탄소중립 실천 웹툰 공모전' 출품작을 접수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관한 자유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지역·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웹툰 전문업 관련 종사자는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당 1점만 출품할 수 있다.

시는 출품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우수상 5명(각 20만원) △우수상 10명(각 10만원) △장려상 15명(각 5만원)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275만원의 상금과 함께 전주시장이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 출품은 작품원본과 참가신청서를 우편,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위기청소년, '꿈멘토와 꿈꾸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명 대상 직업체험 기회 제공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6일 전주시 지역 학교장과 청소년유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위기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4차 직업체험프로그램인 '꿈멘토와 꿈꾸다'를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호남지부장인 박길수 꿈멘토(반려견 케어센터 개토피아 대표)로부터 꿈을 이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시법정과 함께 반려견 훈련법과 낯선 개의 물림사고 예방법 등에 대해 체험했다.

이와 관련 '꿈멘토와 꿈꾸다'는 직업현장에 있는 꿈멘토를 직접 만나 생생한 직업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직업현장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꿈멘토들이 참여해 위기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1388청소년지원단에 소속된 (주)더치공과 문명미커피문화이카 데미에서 바리스타 직업체험을 무료

로 제공해 17명의 청소년이 직업체험에 참여했으며, 1388청소년지원단 소속 셀그 사진관에서 무료로 2명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진작가 체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이어 향후 (주)나무풍경에서 가구디자인 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꿈멘토와 꿈꾸다'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에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서 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 직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꿈멘토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서 "체험을 해보니 더욱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견행동교정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전문직업인들이 나서서 청소년들의 꿈멘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신규 꿈멘토 발굴 및 연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